

도래하는 ‘자이니치 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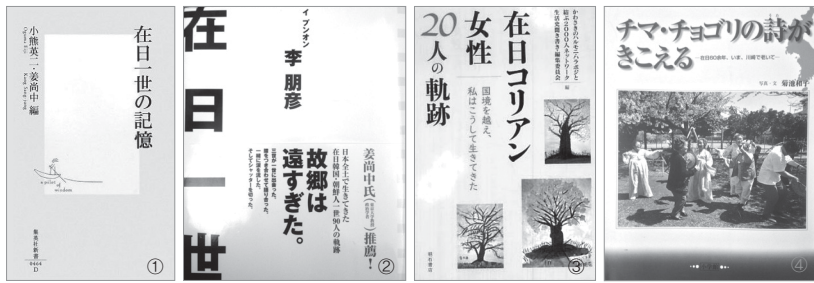
정호석

1. ‘책’ 혹은 타자/이방인의 도래

이 글에서는 재일동포 1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네 권의 책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래 일본사회에서 이들의 삶과 기억이 새로운 문화적 위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글은 책의 내용과 더불어 그 미디어적 형태나 책이 놓인 사회적 맥락으로까지 관심을 넓힌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서평’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글에서는 특정한 텍스트가 사회적 매개(mediation)를 통해 책으로 묶이는 과정, 그리고 책이 갖는 텍스트성(textuality)과 물질성(materiality)이라는 이중적 위상에 유념하면서 재일동포 1세를 다룬 ‘책’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마이너리티 집단이

정호석(鄭鎬碩)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일본 국적법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일본 도쿄 대학 대학원 정보학환·학제정보학부(情報学環·学際情報学府)에서 「김희로 사건의 에코그래피: 미디어, 폭력, 시티즌십」으로 사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일본 세이가쿠인대학(聖学院大学) 기초총합교육부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운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관심에 바탕하여 자이니치의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일본 전후사를 재해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일본어 논문으로 「빈자의 상상: 안토니오 네그리의 『상상』을 둘러싸고」, 「한류와 자이니치: 『겨울 스마타』를 실마리로 삼아」, 「끝나지 않는 『김의 전쟁』: 근년의 『김희로 사건』의 문화적 전유」 등이, 옮긴 책으로 『불안형 내셔널리즘의 시대: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



〈그림 1〉 이 글에서 다룬 네 권의 책

- ① 오구마 에이지·강상중 엮음, 『자이니치 1세의 기억』(小熊英二・姜尚中 編, 『在日一世の記憶』, 集英社, 2008)
- ② 이봉언, 『자이니치 1세, 기억의 저편』(李朋彦, 『在日一世』, 리틀모아, 2005)
- ③가와사키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맺는 2000명 네트워크 생활사 구술기록 편집위원회 엮음, 『자이니치 코리안 여성 20인의 궤적』(かわさきのハルモニ・ハラボジと結ぶ2000人ネットワーク生活史聞き書き・編集委員会 編, 『在日コリアン女性20人の軌跡』, 明石書店, 2009)
- ④ 기쿠치 가즈코, 『치마저고리의 노래가 들려온다』(菊池和子, 『チマ・チョゴリの詩がきこえる—在日60余年、いま、川崎で老いて』, 明石書店, 2005)

책을 통해 소개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공적인 가시성(public visibility)을 획득하는 양상에 주목할 때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한 ‘타자의 도래(avenir)’라는 개념은 매우 시사적이다. 즉, 사회적 타자/이방인은 어떠한 범주나 공적 논제로 다루기에 앞서 활자, 사진, 영상 등 특정한 기록·재현의 기술을 통해 ‘출현’함으로써 사회의 문화적 동일성을 흠집내고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다루는 기존의 범주/담론/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묻는다. 이들의 ‘도래’는 하나의 ‘사건’, 즉 그 자체로서 진지한 탐구를 요청하는 사회적 현상이다.¹ 이때 그러한 도래를 가능케 하는 ‘책’은 단지 특정한 의미를 담은 ‘투명한 용기’가 아니라 타자/이방인의 낯선 모습, 삶, 기억에 인지가능한 물질성을 부여하며

1 일체의 기대와 예측가능성의 지평을 넘어서는 사건(événement)으로서의 타자/이방인의 도래는 데리다의 전 사상적 궤적을 관통하는 주제다. 자크 데리다, 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자크 데리다·베르나르 스티글러, 김재희·진태원 옮김, 『에코그래피: 텔레비전에 관하여』, 민음사, 2002, 37~43쪽.

그에 대한 해석과 감흥이 다시 현실로 엮이는 과정을 고유한 방식으로 틀짓는 ‘미디어이자 메시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책의 형태과 내용, 그 편집 과정과 출판 경위를 살펴봄으로써² 일본에서 재일동포 1세의 삶과 기억이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지, 그 최근의 동향을 두 가지 맥락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그동안 문화계의 주변부에 머물던 1세의 생애사(life history) 기록이 상업적인 출판시장에서 기획, 출간되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이니치 고령자 여성들의 기억과 생활이 지역사회와 풀뿌리 시민운동에서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된 흐름이다.

2. 책으로 도래하는 재일동포 1세

먼저 이들 네 권의 공통점은 재일동포 1세의 생애사를 담아 2000년대 중반 이후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1세들의 삶과 기억이 활자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재일동포에 관한 전후의 연구와 담론은 억압과 저항, 정체성의 다양화 및 그에 대한 반본질주의적 비판을 거쳐 생활세계 속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실천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왔다. 그 가운데, 1세들의 삶과 기억은 이미 1950년대에 강제연행과 간토 대지진기의 학살, 전후 사회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 1970년대에 들어 2세들의 사회 진출과 관련한 각종 반차별투쟁이 공론화되면서 시민운동을 위한 소책자, 문예지, 일부 단행본에서 ‘자이

2 『자이니치 1세의 기억』에 관해서는 담당 편집자와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2015. 12. 12, 14일)를 통해, 『자이니치 코리안 여성 20인의 궤적』 및 『치마저고리의 노래가 들려온다』에 대해서는 가와사키 시 후레아이관(川崎市ふれあい館) 방문조사 및 실무 담당자와의 대면 인터뷰(2015. 12. 15)를 통해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자료를 제공해주고 인터뷰에 협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니치'의 원상(原像)으로 자리매김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를 거쳐 자이니치들이 발행한 문예잡지에는 1세의 도항이나 초기 정착사, 집단거주지역에서의 생활상과 관련한 칼럼이나 대담 기사가 다수 실렸고,³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에세이, 르포, 역사물, 수기 등 1세를 다룬 책들이 다양해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과 함께 1세의 '증언'을 억압받은 이들의 '대항기억'(counter memory)으로 논하는 시각이 부각되었다.

한편, 1세의 '조국/민족지향'과 후속 세대의 '정주화/공생지향'을 구분하는 사회학적인 정체성 조사나 제주도 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사 연구, 그리고 제사, 장례 등 종교적 의례에 관한 민족지 등이 출간되면서 역사학 이외의 다양한 사회과학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⁴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자이니치 코리아나 고령자'의 문제가 대두하면서 주거, 복지, 개호, 인적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과 함께 지역별 혹은 복지시설별로 생애사 기록의 움직임이 일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1세들의 인터뷰 및 구술은 집단거주지역의 형성 및 경제활동에 대한 지역사회학적 연구, 학교경험, 문해(文解)학습활동에 대한 문화연구, 그들의 일본어, 한국어 사용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등 새로운 경향의 연구들을 방법론상으로 특징지으며 학술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⁵

3 대표적인 예로 「夜間中学に学ぶオモニたち」, 『季刊三千里』通巻8号, 1976年 冬号, 82~77쪽; 「私はこうして大阪に渡ってきた」, 『統一評論(特集在日朝鮮人と大阪)』, 通巻143号, 1977, 90~95쪽을 들 수 있다.

4 福岡安則, 『在日韓国・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央公論社, 1993; 高鮮微, 『在日済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関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1996; 伊地知紀子, 『生活世界の創造と実践: 韓国・済州島の生活誌から』, 御茶の水書房, 2000; 孝本貢, 『現代日本における先祖祭祀』, お茶の水書房, 2001; 飯田剛史,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 民族と宗教の社会学』, 世界思想社, 2002; 梁愛舜, 『在日朝鮮人社会における祭祀儀礼: チューサの社会学的分析』, 晃洋書房, 2004.

5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島村恭則, 『“生きる方法”の民俗誌: 朝鮮系住民集住地域の民俗学的研究』, 関西学院大学出版会, 2010; 真田信治・任栄哲・生越直樹 編,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選書, 2005;

한편,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흐름을 보여 온 출판계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1세를 직접 다루거나 그 생활세계에 뿌리박은 정서를 그린 문학작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갈래의 장르가 형성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1) 강제연행, 강제노동, 사회적 차별의 사례를 다루면서도 지역의 맥락 및 노동자 계층의 체험에 초점을 둔 민중사 기록,⁶ (2) 조선인 피폭자, 한센병 환자, BC급 전범 등 자이니치 중에도 소수에 속하는 이들의 생애사를 담은 책의 계보⁷가 각각 1970년대, 80년대 나타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상과 같은 소재를 좀 더 ‘대중성’ 있게 다룬 책으로는 (3) 1930년대 오사카 기시다(岸和田) 방직공장 조선인 여성 노동자들의 쟁의, 쓰루하시(鶴橋) 코리아타운의 형성사, 한국전쟁에 자원한 재일동포 의용병 등의 테마를 이 미 1980년대 중반부터 신서(新書)로 출판한 김찬정(金贊汀)으로 대표되는 ‘논픽션’ 역사물의 계보⁸가 있다. (4) 한편, 1996년 베스트셀러가 된 노무라 스스무(野村進)의 『코리안 세계의 여행』이 보여준 ‘마이너리티 르포’, 대중서의 가능성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전환하면서 ‘성공한 자이니치’의 삶을 통해 일본사회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한 박일(朴一)의 『〈재일〉이라는 삶의 방식』이나,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이니치의 사례를 모은 『100

徐阿貴, 『在日朝鮮人女性による「下位の対抗的な公共圏」の形成: 大阪の夜間中学を核とした運動』, 御茶の水書房, 2012를 들 수 있으며, 학술 잡지로는 2010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コリアンコミュニティ研究』가 새로운 경향의 논고를 다수 실고 있다.

6 『近代民衆の記録〈10〉在日朝鮮人』, 新人物往来社, 1978; 『海峡の女たち 関門港沖仲仕の社会史』, 葦書房, 1983; 『海峡の波高く 札幌の朝鮮人強制連行と労働』, 札幌郷土を掘る会, 1989; 鄭忠海, 『朝鮮人徴用工の記録』, 河合出版, 1990.

7 朴寿南, 『もうひとつのヒロシマ: 朝鮮人韓国人被爆者の証言』, 舎廊房出版部, 1982; 立教大学史学科山田ゼミナール 編, 『生きぬいた証に—ハンセン病療養所多磨全生園朝鮮人・韓国人の記録』, 緑蔭書房, 1989; 内海愛子, 『キムはなぜ裁かれたのか 朝鮮人BC級戦犯の軌跡』, 朝日新聞出版, 2008.

8 『朝鮮人女工のうた 1930年・岸和田紡績争議』, 岩波書店, 1982; 『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 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 岩波書店, 1985; 『在日義勇兵帰還せず 朝鮮戦争秘史』, 岩波書店, 2007 외에도 김찬정은 1세의 생활사를 다룬 책을 다수 집필했다.

명의 자이니치 코리안』 같은 ‘인물/기업전’류,⁹ (5) 1970년대에 처음 나타났으나 2000년대 이후 부쩍 늘어난 각종 회고록 및 자서전류¹⁰ 역시 각각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 (6) ‘아리랑’, ‘제주도 4.3봉기’, ‘최승희’ 등 1세 관련 표제어를 다수 실은 『조선을 아는 사진』, 5년간의 작업 끝에 주요 인물들의 약력 및 1세의 운동사를 망라한 『재일코리안 사진』 등 사진류¹¹ 역시 1세들의 다양한 면면을 알리는 데 일조해왔다.

이처럼 ‘책으로 도래한 1세대’의 궤적을 돌이켜볼 때 떠오르는 출판상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1세를 좀 더 널리 알리면서도 ‘억압의 희생자’라는 틀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삶의 풍부한 결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자이니치 관련 서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출간된 책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1세대는 여전히 출판계·문화계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소위 ‘기억의 정치학’이나 ‘한(恨)의 미학’으로는 간단히 환원될 수 없는 1세들의 다양한 모습이 거의 소개되지 못하는 반면, ‘강제연행’과 ‘전시 성노예’ 같은 첨예한 정치적 측면만이 대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적인 대중성의 극복’과 ‘평면적인 1세상(像)의 극복’은 상호 불가분한 이중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이 글에서 살펴볼 네 권의 책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읽을 수 있다.

9 朴一, 『〈在日〉という生き方』, 講談社, 1999; 良知会 編, 『100人の在日コリアン』, 三五館, 1997. 자이니치들의 인터뷰 및 생활사를 담은 신문 칼럼을 단행본화한 다음의 책들 역시 비슷한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神奈川新聞社会部, 『日本の中の外国人: 「人さし指の自由」を求めて』, 神奈川新聞社, 1985; 愛媛新聞在日取材班, 『在日一日韓朝の狭間に生きる』, 愛媛新聞社, 2004; 高賛侑, 『異郷暮らし: 在日する韓国・朝鮮人の肖像』, 毎日新聞社, 2003.

10 姜魏堂, 『ある帰化朝鮮人の記録』, 同成社, 1973; 金達寿, 『わがアリランの歌』, 中央公論新社, 1977; 姜在彦·金達寿 編著, 『手記=在日朝鮮人』, 竜溪書舎, 1981; 鄭煥麒, 『鄭煥麒随想録』, 育英出版社, 2000; 白宗元, 『在日一世が語る 戦争と植民地の時代を生きて』, 岩波書店, 2010이 대표적이다.

11 伊藤亜人·梶村秀樹·大村益夫·武田幸男, 『朝鮮を知る事典』, 平凡社, 1986, 2000, 2009; 国際高麗学会, 『在日コリアン辞典』, 明石書店, 2010.

3. 두꺼운 신서(新書)와 큰 사진집으로 찾아온 1세

먼저 『자이니치 1세의 기억』과 『자이니치 1세, 기억의 저편』(이하, 각각 『기억』, 『저편』으로 표기한다)은 구술의 분량과 내용 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수많은 1세 관련 서적 가운데서도 단연 눈에 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 일본 문화의 한복판에서 ‘1세의 기억’이라는 문제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적인 성격을 갖는다.

외양과 형태부터 살펴보면, 『기억』은 비교적 작은 판형(17.4×11cm)이지만 상당히 두껍다.(<그림 2>) 표지에는 제목, 엮은이들의 이름 ‘小熊 英二·姜尚中’(오구마 에이지·강상중) 및 ‘集英社新書’(집영사신서)라는 문구가 박혀 있고, 본문에는 52명의 1세들의 이름, 약력, 작은 얼굴 사진과 함께, 가족관계와 유년기, 도일(渡日)과 일본에서의 일과 삶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사가 한 사람당 12~30쪽 분량의 1인칭 직접화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저편』은 큰 판형(27.7×22.9cm)으로, ‘在日一世’(재일1세)라는 큰 제목은 붉은색을 입힌 ‘한 일(一)’ 자가 도드라진다. 아래로 두른 책 띠(帶, 오비)에는 ‘강상중 씨 추천!’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책을 펼치면 인적사항과 함께 한두 마디의 ‘증언’이 소제목을 이루고 각 인물의 생애사가 저자의 요약과 직접인용이 섞인 형태로 실려 있다. 그 맞은편 페이지에는 집이나 일터, 혹은 그간의 활동을 요약하는 상징물을 배경 삼아 포즈를 취한 전신 혹은 얼굴 사진이 실려 있다. 단 한 컷, 부부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마주 본 두 페이지마다 한 명씩, 모두 91명의 인터뷰와 사진이 한 권으로 엮여 있다.(<그림 3>)

이들 두 책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이니치 1세’(在日一世)라는 문구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재일동포’로 일컫는 이들은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재일한국인’(在日韓國人), ‘재일한국·조선인’(在日韓國·朝鮮人), ‘재일코리안’(在日コリアン), ‘재일한인’(在日韓人) 등 다양한 이름으



〈그림 2〉 책의 외양과 크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①『자이니치 1세의 기억』, ② 두께 비교를 위해 함께 배치한 200쪽 남짓의 '보통' 신서, ③『자이니치 코리아' 안 여성 20인의 궤적』, ④『치마저고리의 노래가 들려온다』, ⑤『자이니치 1세, 기억의 저편』)



〈그림 3〉 '자이니치 1세, 기억의 저편'의 페이지 구성

로 불러왔다. 그러한 복수의 호칭이 나름의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혼재, 경쟁하는 가운데 '자이니치'는 단순한 약칭이라기보다는 '조국'에 돌아가지 않고 재일(在日)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정체성의 표현으로 자리잡아 왔다.¹² 그간 '재일/정주/공생지향'과는 오히려 차별성이라는 관점에서 '민족/조국지향'으로 범주화된(categorized) 측면이 강한 이들이 2000년대 중반 '자이니치 1세'라는 명칭으로, 더욱이 학술서나 에스닉 잡지가 아닌 대중서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향후 '자이니치'의 문화적 위

12 재일동포에 대한 다양한 호칭의 의미 및 '자이니치'라는 호칭과 정주화의 관계에 관해서는, 각각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정진성, 「'재일동포'의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동선희, 「계간 『삼천리』(1975~1987)의 '재일문제' 논의: '재일'의 정주화를 중심으로」, 『재일코리안의 생활 문화와 변용』, 선인, 2014. 한편, 『기억』의 편자 강상중이 낸 자서전 『자이니치(在日)』(講談社, 2004)는 이러한 담론의 역사를 배경삼아 '자이니치'라는 표현이 가지는 다의성을 "재일한다"는 사실에 입각한 이산 2세대의 자기선언으로 전유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자이니치'라는 표현의 대중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지점이다. ‘자이니치’ 뒤에 어떤 어구를 붙이는가가 미묘하고도 첨예한 사안이 되어버린 현재, 그러한 정치성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로 1세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시키며 그 중요성을 주장하는 ‘자이니치 1세’라는 호칭은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다음으로, 표지에 실린 ‘이름’ 역시 간과할 수 없는데, 이들 이름은 책 내용과 별개의 수준에서, 심지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책이 수용되는 문화적 맥락을 규정한다. 즉, 1990년대 일본에서 국민국가 비판론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대두가 전후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반성이라는 조류를 형성하는 가운데, 오구마 에이지와 강상중은 저작과 문단 활동을 통해 ‘내셔널리즘’에 관한 담론을 주도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했다. 기존의 자이니치 연구자가 아닌 이러한 ‘떠오르는 스타 학자들’이 편자로 나섰다는 점은 1세의 문제를 이러한 동향 속에 ‘새로운 테마’로 자리매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억』이 다름 아닌 신서(新書)로 출판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사실 1세의 생애사를 모은 것으로는, 민단 청년회가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 기반한 테마별 증언집 『아버지, 들려주세요. 그날의 일을』과 강제노동, 강제연행에 초점을 맞추어 100여 명의 구술을 정리한 『백만인의 신세타령』이 대표적이다.¹³ 하지만, 전자는 자이니치 후속 세대를 주요 독자로 상정한 조사보고서였고, 후자 역시 『조선인강제연행조사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전6권, 柏書房, 1992~2002)과 비견되는 기념비적인 노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54쪽에 달하는 하드커버에 소비세 포함 시 6,000엔이 넘는 고가였기에 그 내용과 별개로 상업적으로 널리 유통되기 어려운 형태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억』은 신서로

13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 編, 『アポジ聞かせて あの日のことを: 我々の歴史を取り戻す運動報告書』,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中央本部, 1988; 「百万人の身世打鈴」編集委員会, 『百万人の身世打鈴: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恨」』, 東方出版, 1999.

기획, 출판되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신서란 고전 위주의 문고본과 달리 현대적 교양이나 학술적 성과를 널리 소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 교양서적으로서, 보통 200페이지 전후의 포켓판(17.4×11cm) 페이퍼백으로 1,000엔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한다. 연간 3~4,000여 종이 새로 나오지만, 신서의 삼대명문가(新書御三家)라 불리는 이와나미(岩波)신서(岩波書店, 1938~), 주코(中公)신서(中央公論社, 1962~), 겐다이(現代)신서(講談社, 1964~)나, 분춘(文春)신서, 슈에이샤(集英社)신서, 헤이본샤(平凡社)신서, 고분샤(光文社)신서 등 1990년대에 시장에 진입한 거대 출판사의 신서 시리즈는, 초판 부수 1만 권 정도의 신간이 일제히 전국의 서점에 깔리면서 일정량이 유통, 소비된다는 점에서 출판계 및 문화 전반의 동향을 반영, 주도하는 사회적 지표로서 기능한다. 더욱이 1990년대 이래 학술서적, 특히 인문 분야의 도서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예전이라면 하드커버로 나올 책들이 대학출판부를 통해 소량만 인쇄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신서로 출판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계와 대중문화 영역, 연구서적과 대중서적의 가교 역할을 하던 신서의 전통적인 위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학술서의 급격한 ‘디플레이션’이 야기한 콘텐츠와 출판 형태 사이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인터넷이 가져온 여파가 겹치면서 학계의 담론이 신서류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식의 단선적인 시각이 그 현실성을 상실한 반면, ‘학술적’ 혹은 ‘큰 자료적 가치’를 가지는 텍스트들이 ‘보다 쉽게 읽히는’ 신서나 전자책의 형태로 속속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억』은 이러한 조류를 배경으로 그간 학계 일부나 출판시장의 주변부에서 생산, 유통되던 1세의 구술이 상업 출판계의 중심에 진입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구마 에이지가 책의 후기에서 소개한 편집에 관한 내용(774~781쪽)과 필자가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억』은 기획에서 출판까지 약

5년이 소요되었다. 담당 편집자는 전문연구자 및 『백만인의 신세타령』의 편집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다년간 1세를 취재한 필자들의 축적된 역량을 흡수하는 형태로 〈자이니치 코리안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모임〉(在日コリアンの声を記録する会)을 조직했다. 이렇게 관동과 관서 지역을 담당하는 두 명의 사무국장(高秀美, 高賛侑)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인터뷰 작가를 통해 채록한 구술은 순차적으로 출판사의 신서 웹사이트¹⁴에 공개됨으로써 출판에 앞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이때 특기할 만한 점은 예전이라면 오로지 채록자의 의지와 열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부분, 즉 통상적인 편집비로는 감당하기 힘든 구술 원고비용을 웹홍보 콘텐츠의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구술집 출판에 고유한 비용상의 난점을 풀어냄으로써 이 책은 ‘첫 구술집 신서’라는 기록을 세운 동시에, 신서로서 전례가 없는 784쪽의 분량으로 출간되었다는 점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출퇴근 시 혹은 휴일에 집어드는 적절한 난이도의 읽을거리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무게감’을 가지되 그렇다고 아예 엄두를 못 낼 만큼은 아닌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책은 신서 서가에서 ‘가장 두꺼운 쪽’을 차지하거나, 혹은 절판의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고본이 늘어선 ‘아마존 재팬’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독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1세의 기억’을 물질성과 그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존재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변화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¹⁵

한편, 『저편』은 1세들의 ‘커다란 사진’을 제공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14 『기억』의 출간과 더불어 이 웹콘텐츠는 삭제되었으나 그 대신 『기억』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자이니치 2세의 기억’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웹사이트에는 2015년 12월 현재 38명의 구술 기록이 공개되어 있다. (<http://shinsho.shueisha.co.jp/column/zainichi2/>)

15 『기억』은 초판 9,000부가 나온 이래, 2015년 12월 현재 5쇄, 약 2만 부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구술집이라는 점, 그리고 통상적인 신서의 약 두 배에 달하는 1,600엔(소비세 미포함)이라는 가격을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판매고라 할 수 있다.

책이다.¹⁶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1세들의 사진으로는 1965~1970년경 오사카(大阪) 이카이노(猪飼野) 풍경과 인물 군상을 담은 『조지현 사진집 이카이노: 추억의 1960년대』와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의 소장자료인 도록(圖錄) 『사진으로 보는 자이니치 코리안의 100년』¹⁷이 있다. 하지만, 『저편』은 인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과거 모습이 아닌 ‘현재’를 증언과 함께 구성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고려박물관(高麗博物館) 혹은 지역 NPO(Non Profi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옛 자이니치의 사진전이 몇 번 열린 적이 있으나, 이봉언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에서 6회에 걸친 사진전을 열고, 수차례의 강연회 및 시인 김시중, 작가 현월과의 토크 이벤트 등 일련의 문화 행사와 함께 ‘1세’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자이니치 1세가 이러한 현대적인 ‘마케팅/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 소개되었다는 것은 신선했다. 이는 그간 자이니치 관련 서적의 출판이 특정 출판사로 한정되면서 상업적 시류에서 한 발 빗겨나 있었다는 점과도 좋은 대조를 이룬다. 생활, 디자인, 예술 관련 서적/잡지를 주로 내는 출판사에서 기획, 출판한 『저편』은 ‘보다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차별화를 꾀하고 1세를 소개했다는 면에서 자이니치 관련 대중서의 앞날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6 『저편』은 이 글에서 다루는 네 권 중 유일하게 한국어 번역서(윤상인 옮김, 『재일동포 1세, 기억의 저편』, 동아시아, 2009)가 있으나 책이 수용되는 사회적 맥락이 판이할 뿐만 아니라 그 판형(20×15.2cm)도 훨씬 작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하의 논의는 원서로 한정한다. 단, 『저편』의 원저가 페이지 수를 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용은 국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17 曹智鉉, 『チョジヒョン 写真集 猪飼野: 追憶の1960年代』, 新幹社, 2003; 在日韓人歴史資料館, 『写真で見る在日コリアンの100年』, 明石書店, 2008. 이 외의 사진집으로 金裕, 『同胞』(白峰社, 1991), 道岸勝一, 『ある日』(新宿書房, 1985)가 있으나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4. 책이 매개하는 1세의 삶과 기억

그렇다면 이들 책이 1세의 삶과 기억을 어떻게 매개, 전달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자.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기억』에 담긴 1세의 삶은 가족과의 생이별과 유랑의 고통, 혹독한 가난과 모욕적인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그 기억의 페이지마다 망국과 이산, 해방과 잔류, 한국전쟁과 분단, 남한의 ‘유신’과 북한으로의 ‘귀국사업’, 일본의 고도성장과 한국의 민주화 투쟁 등 한일의 현대사가 아로새겨져 있다. 또한 한신교육투쟁, 민단과 총련의 대립, 히타치 취직재판, 제주도 굴보내기 운동, 우토로 재판, 치마저고리 폭행사건, 연금보장재판 등 자이니치 관련 주요 사건들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직접화법으로 서술된 그들의 기억은 어떤 연대기적 사실관계나 정보의 집합으로 환원불가능한 강렬한 독서 체험을 가능케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1세의 다양성이다. 이들은 강제연행당하거나 ‘모집’에 자원하거나, 어차피 다가올 ‘징용’에 앞서, 가난에 못이겨, ‘제주 4.3사건’ 같은 국내적 환란을 피해, 혹은 부자가 되거나 공부를 위해, 가족을 따라, 어쩌다 도항허가증을 얻어서 등 갖가지 이유와 계기로 도일했다. 그리고 해녀, 총독부 직원, 유학생, 민족학교 교사, 사회운동가, 종교인, 작가, 미술가, 음악가, 원폭피폭자, 한센병 환자, BC급 전범, 재일한국의용군 자원병 등 그 사회경제적 위치나 경력, 현재의 상황 역시 매우 다채롭다. 특히, 조선인과 결혼한 후 치마저고리를 만들며 다섯 아이를 조선적으로 키운 일본인 여성(718~731쪽)을 비롯한 2명의 ‘일본인’이나 일본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도일한 소위 ‘1.5세’, 해방 직후 혼란기에 일본에 건너간 십여 명 등의 사례는 ‘자이니치 1세’가 민족적 동질성이나 국적, 세대를 근거로 단선적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체험’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탐구될 수 있는 유동적이고 입체적인 범주임을 잘 보여준다.

둘째, 『기억』은 1세의 활동적인 행위자성(agency)과 현재성을 잘 보여준다. 민단과 총련의 조직건설, 교육운동, 고국공헌사업, 반차별투쟁, 2세 보육사업, 민족명쓰기운동 등을 주도하는 1세는 한낱 ‘억압받는 소수자’가 아니며, 더욱이 이러한 활동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실로 독자와 동시대를 사는 생활인임을 거듭 환기한다. 강제연행으로 죽은 동포의 유골을 모으고(117~119쪽), 일본의 사죄를 구하는 소송을 벌이며(241~245쪽), BC급 전범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258~264쪽), 구 식민지출신고령자 연금소송을 벌이는(402~403쪽) 모습은 이들이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웅변한다.

셋째, 『기억』은 토목, 고철업, 해체업, 분노처리, 청소나 접시닦이, 신발이나 벨벳 제조 등 가내수공업, 각종 수선, 사탕이나 비누 등 생필품 장사, 암거래, 밀주(도부로쿠) 제조, 양돈, 파친코/카바레 운영에 관한 방대한 정보와 함께 고향에서의 식생활(28~30쪽), 해녀의 일과(38~40쪽), 선박의 방수처리 공정(101쪽)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 재현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1세의 노동이라는 학문적 미답의 영역에 관한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한편 『저편』의 특징은 커다란 사진과 함께 단편적인 증언이 갖는, 마치 폐부를 찌르는 듯한 효과(punctum)다. 예컨대 “자식은 전부 여섯을 낳았는데, 셋이 죽어서 지금은 세 명만 남았대요. 다 젊어서 죽었어. 여섯 살, 열네 살, 스물 여덟 살…,”(137쪽)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면 이래도 되는 건지 생각하게 된다우.”(69쪽) 같은 말은 상세한 부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고통의 존재를 암시한다. 수 십년 간의 노동의 고단함이 그저 “두 시간 이상 잔 적이 없지.”(112쪽) “아침 네 시에 일어나면, 밤 아홉 시까지 장화를 벗을 수 없었어.”(249쪽)와 같은 한두 마디로 요약되기도 하고, “젊었을 때 고생은 고생이 아니야. 건강하기만 하면 고생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나까. 지금은



〈그림 4〉 『자이니치 1세, 기억의 저편』에 실린 사진

나 혼자서 목욕도 잘 못해. 이게 고생이지.”(273쪽) 같은 말은 이들의 복지문제를 더없는 강렬함으로 부각시킨다. 이러한 말들은 『기억』의 상세한 구술이나 일반적인 역사 서술에 비해 너무나 압축적이어서 오히려 ‘아직 말해지지 못한 심급’을 의미하며 더욱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와 같은 함축적인 구어의 경제성은 인생의 중반에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처연한, 때로는 무표정한 모습과 함께 더욱 극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예컨대, 김순봉(金順鳳)은 가장 ‘일본적인’ 상징인 후지산 앞에 한복 차림으로 서 있다.〈그림4〉 일본과 조선의 대비가 빚어내는 의미론적 긴장을 사선으로 비껴가듯 시선은 옆을 향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 페이지에 담긴 톡톡 끊기는 몇 마디가 비감(悲感)을 더한다. “난 여기가 좋아요. 사계절 분명하고 공기도 맑고, 겨울이 좀 춥긴 하지만. 후지산도 좋지요. 맑을지 비가 올지 한눈에 알 수도 있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 꿈 같지, 뭐, 용케 여태껏 살아왔구나 싶고, 몇 번이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나 몰라요”,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 역시 쓸쓸하기는 해도 신경 쓸 일도 없고. 아무때나 친구들이 차 마시러 올 수도 있고.”(393쪽)

요컨대 이 두 권의 책은 1세의 삶과 기억에 보다 대중적인 위상을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문체, 수사적 특성이라는 면에서 상이한 면모를 보인다. 즉 『기억』이 각 인물의 생애사를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삶의 세세한 결(texture)과 함께 ‘1세’의 다면성과 깊이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저편』은 커다란 사진과 극도로 함축적인 구어가 갖는 정동

적인(affective) 힘을 통해 여하한 지식이나 논리로 쉽사리 수렴되지 않는 ‘1세’의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고 느끼도록 유도한다.

5. 책이 전하는 ‘1세 할머니들’과 지역운동:

삶의 표현과 기억의 이월

다음으로 구술집 『자이니치 코리안 여성 20인의 궤적』과 사진집 『치마저고리의 노래가 들려온다』(이하, 각각 『궤적』, 『노래』로 표기한다)는 공통적으로 가와사키시(川崎市)의 시민교류센터 후레아이관(ふれあい館)이 운영하는 재일코리안 고령자 문해(文解)학습모임 〈우리학교〉 및 고령자 교류모임 〈도라지회〉(トラジの会) 소속 ‘할머니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지역운동에서 ‘자이니치 1세의 기억’이 갖게 된 독특한 위상을 잘 보여준다.

연분홍 배경에 할머니들이 그린 벚꽃나무 그림들을 앞뒀면 겉표지로 삼은 『궤적』은 1912~31년생 할머니 20명의 구술을 한 명당 4~13쪽 분량으로 정리한 1부 이외에도, 이러한 생애사를 기록하는 활동이 갖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의의를 소개한 서문, 구술이 다루는 시대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며 ‘창씨개명’, ‘공습’, ‘외국인등록’, ‘귀국운동’ 등을 해설한 ‘할머니들의 시대’, 식자학습활동과 작문, 그림을 소개한 ‘할머니들이 걸어온 역사와 지금’, 이렇게 세 편의 글을 싣고 있다.

한편 『노래』의 표지 사진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꽃놀이를 나온 할머니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다. 책장을 넘기면 8쪽에 걸친 70여 명의 얼굴 사진에 이어 옛 자이니치 집단거주지(楳本, 池上町, 浜町)의 현재 모습과 ‘사쿠라모토 풍물놀이’ 등 다양한 지역 다문화 교류행사, 그리고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고 혼자 화투를 치거나 김치를 담그는 등의



〈그림 5〉 『노래』에 실린 1세 할머니들의 사진

- ① “정갑순 씨, 78세, 13세 때 도일, 74세 때 뇌경색으로 쓰러져 한때 삶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힘을 북돋워주고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갈 의욕이 생겨났습니다.”(30쪽)
- ② “오늘은 〈도라지회〉에서 한국 여행을 떠납니다. 출발 전 아침, 들뜬 마음으로 입술 연지를 바릅니다.”(68쪽)
- ③ “자신 있는 수영복 차림으로 수영장에 들어섰습니다.”(64쪽)
- ④ “장구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지팡이를 놓고 허리를 펴 둥근 원에 합류합니다.”(54쪽)

일상 풍경에서부터 글을 배우고 학생들과 요리를 하거나 야유회에서 장고가락에 맞춰 춤추고, 온천지나 한국으로 여행 온 할머니들의 모습이 실려 있다.〈그림 5〉 권말에는 현해탄을 넘은 이야기, 노동의 고단함, 조국에 대한 느낌 등 테마별로 12명의 짧은 증언이 덧붙여 있다.

먼저 이 두 권의 책은 자이니치 고령 여성들의 기억과 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개하는’ 지역 시민들의 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몇몇 연구들이 지적해왔듯이 후레아이관은 1990년대 이래 ‘다문 화공생’에 관련한 혁신적인 시정으로 널리 알려진 가와사키 시의 지역 운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시설이다. 시당국 및 지역주민과 다년간의 협상을 거쳐 “일본인과 한국, 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재일 외국인인, 어린이부터 고령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함께 만나 교류(후

레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이래, 후레이이관은 재일동포 및 외국적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보육사업, 청소년 교류, 시민학습, 장애인 및 고령자 복지사업, 국제교류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중 ‘식자학급’(識字學級)은 아동보육시설 사쿠라모토학원(桜本学園)이 1978년부터 운영해온 성인대상 문해교실의 전통을 계승하여 후레이이관의 개관과 더불어 정식 개설된 이래, 재일동포 1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뉴커머’들이 일본어를 익히고 또한 일본인 시민들이 그러한 학습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오랜 시민활동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1995년경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고령자들의 출석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의 복지정책 및 연금제도에서 배제된 재일동포의 복지문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후레이이관은 1997년 고령자 복지사업과 연계된 형태로 1세, 2세 할머니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식사를 하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교류하는 모임인 <도라지회>를 출범시켰다. 2004년에는 뉴커머 및 다른 외국 이주민들의 비중이 높아진 기존의 식자학급과 별도로 <도라지회>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리학교>가 출범하게 된다.(13~14쪽) 『궤적』과 『노래』는 1세들의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억’과 ‘삶’을 둘러싸고 지난 20여년간 축적되어온 지역사회의 실천에 관한 보고서라는 성격을 갖는다.

둘째로 주목할 것은 1세들의 위상이다. 단순한 평생교육이나 친목증진이 아니라 복지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에 주안점을 둔 체계적인 시민운동으로 기획, 전개되어온 <도라지회>와 <우리학교> 활동 속에서, 1세는 단순히 보호받거나 기록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권리요구자, 자기표현의 담지자로 여겨지며, 그들의 기억 역시 정적인 과거라기보다는 조직적인 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산출/기록/전승되는 동태적인 역사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궤적』에 실린 논

문이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할머니들의 문해학습은 단지 읽고 쓰는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간의 리터러시로부터의 배제를 낳은 역사 및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에 입각한 시민운동이자 ‘선생에 의한 교육’이 아닌 ‘공동학습자들의 활동’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¹⁸(12쪽) 따라서 운영진 및 자원봉사자들은 1세의 역사를 담은 책을 교과서로 삼아 그 시대의 ‘산 증인’과 함께 배우는 동시에 할머니들로부터 증언, 글,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이끌어내고 이에 접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존 인식과 정체성을 새로이 한다.(18쪽) 또한 그러한 표현들이 사회적으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1세의 기억을 둘러싼 사업 역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전승시키는 ‘가타리베’(語り部, 이야기꾼) 활동 내지는 세대간 교류의 성격이 강하다. 즉 할머니들은 지역시민들의 모임에서 혹은 소학교의 가정과 수업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전을 부치고 김치를 담그면서 지난 삶을 들려주기도 하고, 대학교 집중강의에 강사로 서기도 하며 전시회를 통해 작문과 그림을 선보이기도 한다. 『계적』의 생애사 기록은 2006~7년에 시행된 ‘가와사키 할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엮는 2000명 네트워크’(かわかきのハルモニ・ハラボジと結ぶ二〇〇〇人ネットワーク)의 여름방학 행사에서 고교생, 대학생들이 역사강좌를 듣고 그룹별로 할머니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감상문과 함께 엮은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노래』는 처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던 사진작가 기쿠치 가즈코(菊池和子)가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면서 작품전과 함께 기획, 출판된 사진집이다.

셋째, 이러한 활동은 다채로운 미디어 형식으로 매개되면서 새로운

18 이러한 기본이념에는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에게 큰 영향을 받은 두 인물, 즉 요코하마 코토부키식자학교(横浜寿識字学校)의 오사와 도시로(大沢敏郎)와 후레아이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청구사(靑丘社) 초대 이사장인 이인하(李仁夏) 목사의 사상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川崎市ふれあい館高齢者識字学習学級・ウリハッキョ 編, 『ウリハッキョの作文集 おもいはふかく』, 2011, 7쪽).

활동을 촉발시켰다. <도라지회>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꽃할매>(花はんめ)(감독 金聖雄, 2004)와 사진집 『노래』(2005)를 통해 할머니들의 존재가 지역 외부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즈음 시작된 ‘2000명 네트워크’의 활동기록은 ‘가와사키 자이니치 코리안 생활문화자료관’이라는 인터넷 자료관 및 운영위원회가 발신하는 ‘이메일 매거진’에 실려 홍보됨으로써 새로운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터넷 자료관은 할머니 32명의 삶의 궤적을 표시한 지도, 사진, 생애사 기록과 함께 일부 육성을 웹상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다.¹⁹ 한편 『궤적』이 전해짐으로써 교토(京都) 우지(宇治市)시의 야간중학교 문해학급 같은 타 지역 1세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등 교류가 생겨났고, 『노래』에 실린 작품을 포함한 할머니들의 사진은 1990년대 초부터 가와사키 시와 시민교류를 추진해온 부천시를 비롯하여 광주 및 부산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한국 시민들에게 소개되었다.²⁰ 1990년 UN 국제 문해의 해(International Literacy Year) 관련 행사에 할머니들이 참가하여 방글라데시, 타이 등의 고령자 문해학습 운동가들을 만난 이후, 할머니들의 자기표현은 이와 같은 구술집과 사진집의 출판,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한국과의 시민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존의 ‘자이니치 1세’나 ‘지역운동’에 월경적(cross-border) 면모를 더하고 있다.

19 <http://www.halmoni-haraboji.net> 이 웹사이트에 관한 상세한 리뷰는 다음 논문을 참조. 橋本みゆき, 「ウェブサイト『川崎在日コリアン生活文化資料館』が展示するもの 歴史を記録する実践の論理」, 『多言語多文化-実践と研究 1』, 東京外国語大学多言語・多文化教育研究センター, 2008, 147~160쪽.

20 가와사키 시와 부천시 간의 교류는 1990년대 상점가 교류에서 출발하여 1996년 우호도시 체결과 직원 교환 파견, 2000년부터 고교생 교류, 2003년 가와사키, 부천시민교류회 상호협력협정서 조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이러한 양상 전반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山田貴夫, 「川崎における外国人との共生の街づくりの胎動」, 『都市問題』 89卷 6号, 1998년 6月号; 山田貴夫, 「市民同士の連帯を求めて」, 『世界』, 1998년 10月号.

넷째, 이 두 권의 책에는 가부장적 억압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본에서 하층민의 삶을 살면서 70세가 다 되도록 노동에 시달리다 연금 혜택에서 소외됨으로써 젠더, 계급, 민족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고통받는 1세 여성들의 ‘복합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의 희생자로서의 실상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을 배워 기억을 전수하면서 젊은이들과 연대하고 또 춤과 노래, 운동을 즐기면서 여생을 만끽하는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욕망의 주체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서로 대조적인 두 측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활자가 전하는 가혹한 과거의 삶은 사진이 전하는 〈도라지회〉 회원들의 즐거운 현재 모습과 겹치면서 한층 더 생생하게 할머니들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이렇게 이들 책은 1세 할머니들의 기억과 삶을 다른 지역에 알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기록인 동시에 그러한 자기표현의 공간적 확산과 기억의 세대간 이월을 둘러싼 사회적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6. ‘자이니치 1세’의 새로운 도래를 기다리며

이상 네 권의 책을 통해 새삼 분명해지는 것은 ‘1세의 기억과 삶’이 여타 사회적 현실과 유리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책’으로 매개하는 활동 그 자체에 대한 고려 없이 책의 의미론을 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자크 데리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자/소수자/이방인은 새롭게 기재됨으로써 그때마다 새롭게 도래한다. 이상 네 권이 보여주듯 대중적 접근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 힘입어, 혹은 면면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지역 시민운동과 함께 ‘자이니치 1세’는 새로이 도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들 책을 1세들의 ‘충만한 음성 언어’(parole pleine)²¹를 일부 잘라내고 다시 짜맞춘 열등한 기억의 판본 혹은 현전하는 1세를 복원하기 (restitute) 위한 자료가 아닌, 도래의 ‘사건’, 즉 정치공동체의 문화적 구성에 동적으로 개입하는 풍부한 질적 특성을 지닌 창조적인 텍스트로 바라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미 알려진 그 어떠한 시티즌십의 경로나 정체성 정치의 패턴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자이니치 1세’의 잠재적 파급력을 문화적 개입의 현실적 가능성으로 살려나갈 수 있으리라. 이에 앞으로 도래할 자이니치 1세의 ‘새로움’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학문적 태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그러한 고민에는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한국의 입장, 즉 “재일동포 1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래하는가”라는 질문이 응답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1 자크 데리다, 김성도 옮김,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2010, 26쪽.